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"한-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내년 중 실시"

- 2일 류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와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
- 우리나라 화물차가 카페리를 통해 한국-중국 간 직접운송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일 류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를 만나 복합일관수송(Road Feeder Service) 등 양국 간 물류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중국 산둥성은 지리적, 역사적으로 한-중 양국의 교량역할을 해왔고, 현재 4천여 한국 기업이 진출한 양국 경제교류의 핵심 지역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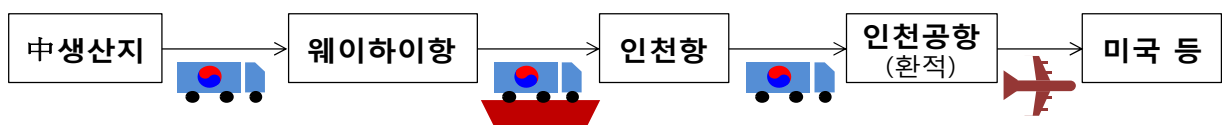
* ('18년) 한-중 전체무역액의 11%(강소성, 광둥성에 이어 3위)

□ 양측은 이 번 면담에서 화물을 트럭에 실은 상태로 차량교체 없이 배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복합일관수송(RFS)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이번 논의된 시범사업은 한국차량으로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 보세구역부터 웨이하이항, 인천항, 인천공항을 거쳐 북미지역까지 운송하는 육해공 복합운송사업이다.

【 RFS 시범사업 개요 】

- Road Feeder Service : 차량교체 없이 화물을 실은 상태로 배에 선적



-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는 “산둥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”이라며, “웨이하이항 - 인천항 -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한-중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”고 제안하였다.
- 이에 김현미 장관은 “한-중 복합운송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를 개척하여 호혜적 교역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”라고 답하며, “국토교통부는 관세청, 인천시, 인천항만공사,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,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 양측은 오늘 논의된 의제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, 세부 사업방식 확정, 통관제도 정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2019. 12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